

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

경제주평

Weekly Economic Review

-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
특징과 시사점

목 차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

Executive Summary	i
1. 개관	1
2.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	2
3. 시사점	9

-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.
-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총 괄 : 이 부 형 동북아연구실장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- 경제연구본부 : 이 해 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
< 요약 >

■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비중 축소

최근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이 상승하였다. 200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(ODI) 규모(flow)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.0%(일본 2.5%, 한국 0.4%, 중국 0.1%)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여, 2013년 현재 18.8%(일본 9.6%, 중국 7.2%, 한국 2.1%)에 달하고 있다. 한편,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3국간 산업협력 약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. '05~'08년 평균 12.0%였던 역내 직접투자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'09~'12년 평균 8.9%로 3.1%p 축소된 것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고,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

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 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, 서비스업 등 전체 6개 업종에 대한 상호 직접투자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. **첫째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.**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2008년 2,036억 달러에 달했으나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축소, 2011년부터 2,12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. **둘째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.** 금융위기 이전 '05~'08년 역내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5.3%에 달했으나, 동 '10~'12년은 25.4%에 그쳤다. **셋째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대상으로는 중국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.**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중 對 중국 비중은 '05~'08년 평균 81.4%에서 '10~'12년 평균 83.7%로 확대되었다. **넷째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.** 역내 최대 투자국은 일본이며, 한중일 3국간 총 역내 직접투자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'05~'08년 평균 66.6%에서 '10~'12년 평균 73.4%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. **다섯째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었다.** 일본의 對 한국 및 對 중국 투자와 한국의 對 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

었다. 한국의 對 일본 투자와 중국의 對 한국 및 對 일본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이
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었다.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 >

구분	내용		
① 역내 투자 규모 확대	-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 확대 · 2008년 2,036억 달러 → 2009년 1,487억 달러 → 2011년 2,120억 달러		
② 투자 증가 속도 둔화	-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· '05~'08년 연평균증가율 : 45.3% · '10~'12년 연평균증가율 : 25.4%		
③ 對 중국 쏠림 현상 심화	- 역내 상호 투자 비중 · '05~'08년 평균 : 對 중국 81.4%, 對 한국 15.9%, 對 일본 2.7% · '10~'12년 평균 : 對 중국 83.7%, 對 한국 14.5%, 對 일본 1.8%		
④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지속	- 최대 투자국 · '05~'08년 평균 : 일본 66.6%, 한국 31.5%, 중국 1.9% · '10~'12년 평균 : 일본 73.4%, 한국 24.3%, 중국 2.3%		
⑤ 여전히 제조업 중심 이나 점차 서비스업 투자 확대	일본	對 한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40.9%, 서비스업 29.5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35.9%, 서비스업 30.1%
		對 중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61.3%, 서비스업 19.3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56.0%, 서비스업 21.9%
	한국	對 중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75.2%, 서비스업 20.0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78.2%, 서비스업 20.9%
		對 일본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15.2%, 서비스업 84.4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15.6%, 서비스업 82.7%
	중국	對 한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6.9%, 서비스업 92.6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22.9%, 서비스업 74.9%
		對 일본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0.3%, 서비스업 99.6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40.1%, 서비스업 59.4%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작성.

■ 시사점

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
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. **첫째**,
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·강화할 필요가 있다. **둘**
째, 對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 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
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. **셋째**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
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.
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
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1. 개관

○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이 급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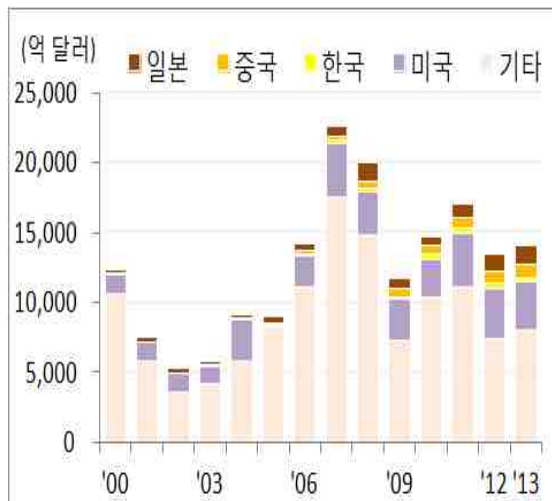
-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
 - 200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(ODI) 규모(flow)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.0%(일본 2.5%, 한국 0.4%, 중국 0.1) 수준에서 2013년 18.8%(일본 9.6%, 중국 7.2%, 한국 2.1%)로 대폭 확대

○ 한중일 3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는 한편 3국간 역내 상호투자 비중은 축소

- 한중일 3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
 - 한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4.0%에서 2013년 17.9%로, 중국은 2.3%에서 6.7%로, 일본은 5.9%에서 20.3%로 확대되었음
- 한편,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
 - 2012년 기준 한중일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전체의 9.9% 수준(2005년 17.6% 대비 7.7%p 감소)
 - '05~'08년 평균 역내 직접투자 비중 12.0%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'10~'12년 평균 8.9%로 3.1%p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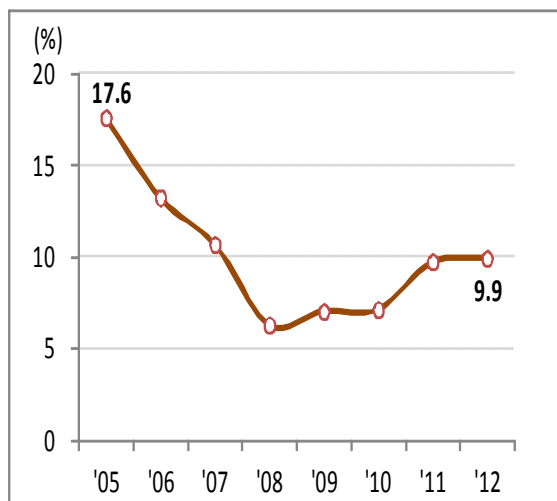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고,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전세계의 ODI 규모 추이 >



자료 :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.
주 : flow 기준임.

< 한중일 3국간 역내 상호 직접 투자 비중 >



자료 :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.

2.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

1) 분석 방법

- 분석 범위 및 대상 : 한국, 중국, 일본 3국의 제조업, 서비스업 등 전체 6개 업종에 대한 역내 상호 직접투자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석¹⁾
- 분석 시기 :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변화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(2005~2008년)과 후(2010~2012년)로 나누어 비교
- 주요 분석 지표 : UNCTAD, 한국수출입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은행(BOJ) 등의 데이터 활용

< 데이터 출처 및 분석 기간 >

구분	출처	기간
한중일 전체 역내 상호 직접투자	- UNCTAD	- 2000~12년
국가별·산업별 역내 상호 직접투자	한국 - 한국수출입은행	- 2005~14년
	중국 -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- 일본은행	- 2005~14년
	일본 - 일본은행	- 2005~14년

1)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6개 업종은 농림어업, 제조업, 전기가스수도업, 광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이나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요 분석 대상임.

2)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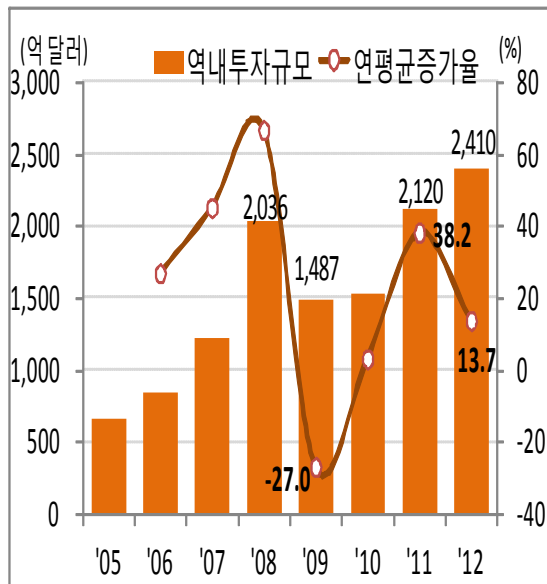
① (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 확대)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

-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었으나, 2011년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규모가 확대
-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급증하던 역내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,487억 달러로 감소, 2011년 이전 수준인 2,120억 달러로 회복

② (역내 투자 증가 속도 둔화)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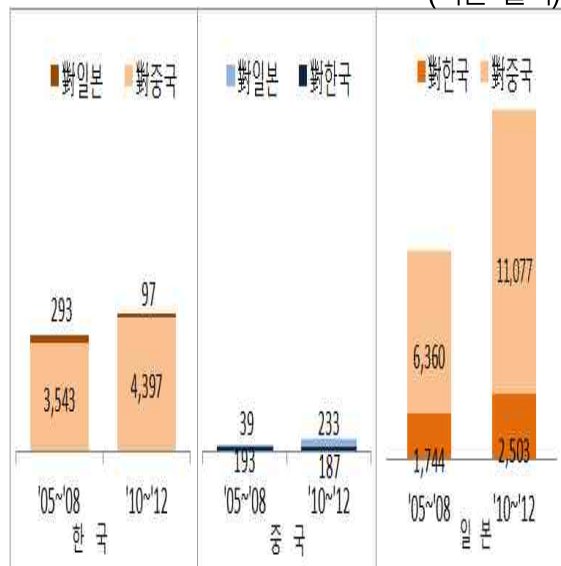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전 '05~'08년간 역내 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5.3%에 달했으나, '10~'12년은 연평균증가율은 25.4%에 그침

< 한중일의 역내 상호 직접투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>



자료 :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대상국별 직접 투자 비중 > (백만 달러)



자료 :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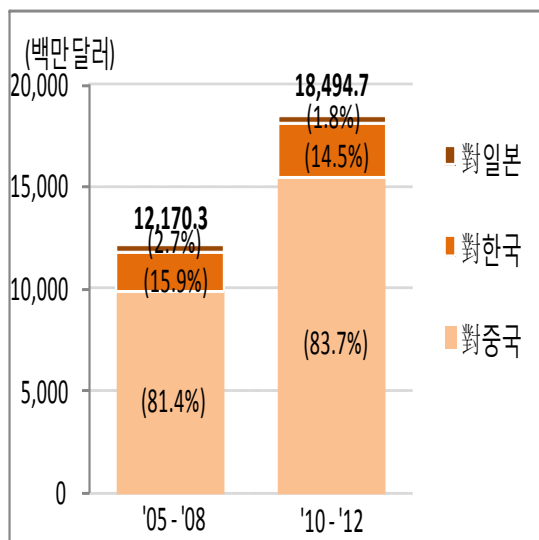
③ (對 중국 쏠림 현상 심화)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비중은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

- 한중일 3국간 역내 상호 직접투자 비중은 對 중국, 對 한국, 對 일본 순
-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중 對 중국, 對 한국, 對 일본의 비중은 '05~'08년 평균 각각 81.4%, 15.9%, 2.7%로 對 중국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
- 동 '10~'12년 각각 83.7%, 14.5%, 1.8%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對 중국 투자 비중이 소폭 확대

④ (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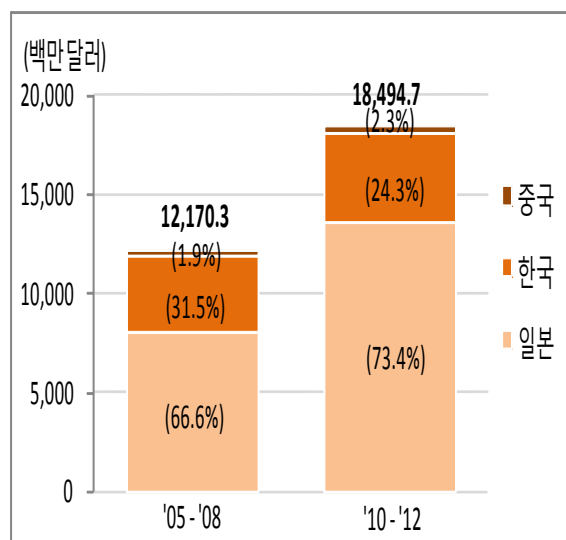
- 한중일 3국간 역내 상호 직접투자의 최대 투자국은 일본
- 한중일 3국간 총 역내 직접투자 중 일본, 한국,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'05~'08년 평균 66.6%, 31.5%, 1.9%에서 '10~'12년 평균 각각 73.4%, 24.3%, 2.3%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과 중국의 역내 투자 비중은 확대되었으나, 한국의 역내 투자 비중은 축소되었음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비중 >



자료 :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<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주체별 투자 금액 평균 비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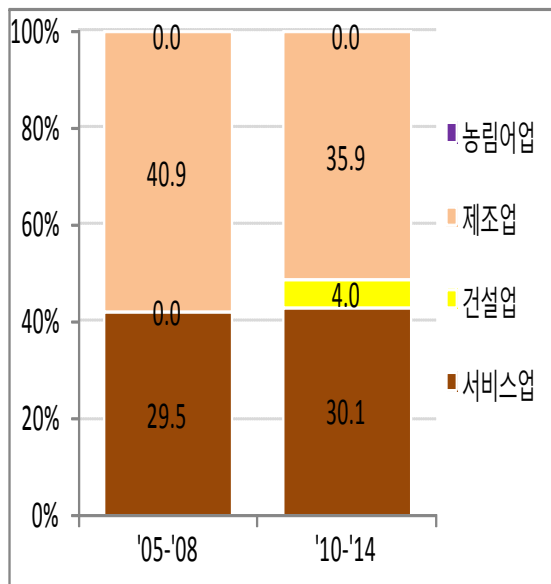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⑤ (제조업 중심 투자 지속 속 서비스업 투자 확대)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

- 일본의 對 한국 최대 투자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이나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소폭 확대
 - 제조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40.9%에서 '10~'14년 35.9%로 5.0%p 축소
 - 서비스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29.5%에서 '10~'14년 30.1%로 0.6%p 확대, 서비스업 내 금융·보험은 4.5%에서 9.8%로, 도소매업은 3.0%에서 4.2%로 확대된 반면, 부동산업은 0.3%에서 0.2%로 축소
- 일본의 對 중국 최대 투자업종은 제조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는 축소되는 한편, 서비스업 투자는 소폭 확대
 - 제조업 부문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61.3%에서 '10~'14년 56.0%로 5.3%p 축소
 - 서비스업 부문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19.3%에서 '10~'14년 21.9%로 2.6%p 확대,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은 9.5%에서 9.6%로, 금융·보험은 5.3%에서 6.7%로, 부동산업은 1.4%에서 2.9%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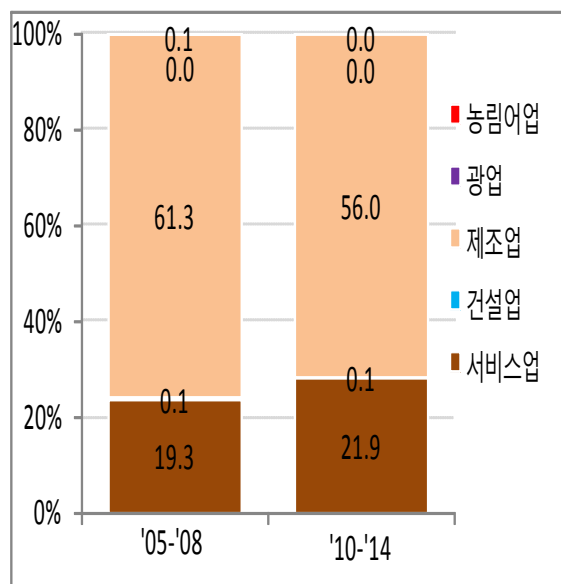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업종별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 >



자료 : 일본은행(BOJ)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
주 : 각 구간 평균.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업종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>



자료 : 일본은행(BOJ)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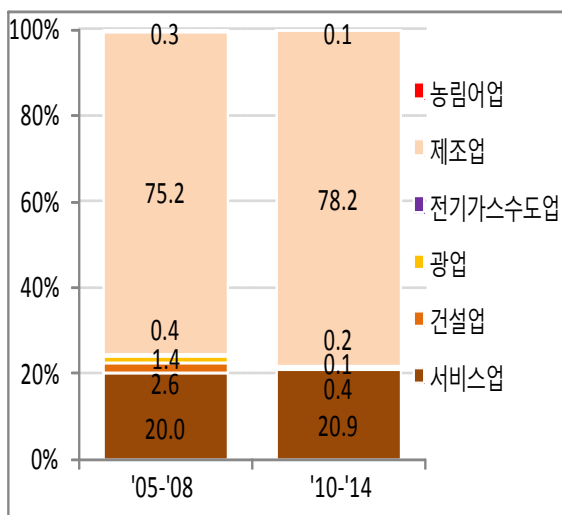
주 : 각 구간 평균.

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

- 한국의 對 중국 최대 투자업종은 제조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제조업 투자는 확대
 - 제조업 부문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75.2%에서 '10~'14년 78.2%로 3.0%p 확대
 - 동 서비스업은 평균 20.0%에서 20.9%로 0.9%p 확대, 서비스업 내 금융·보험업은 6.5%에서 5.5%로 축소된 반면, 부동산업은 2.6%에서 4.3%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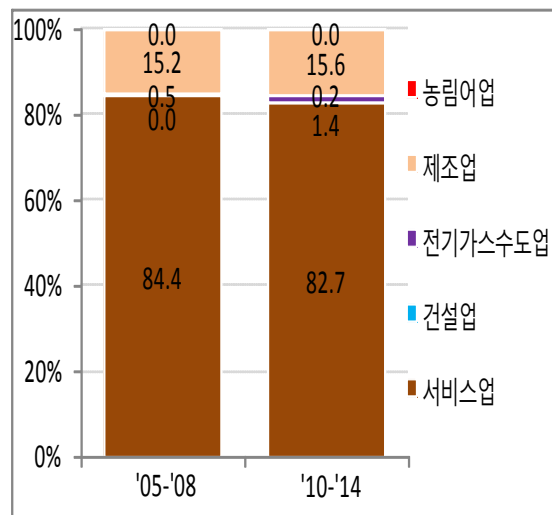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對 일본 최대 투자업종은 여전히 서비스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는 축소된 반면, 제조업 투자는 소폭 확대
 - 서비스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84.4%에서 '10~'14년 82.7%로 1.7%p 축소,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은 10.7%에서 32.0%로 금융·보험업은 2.4%에서 6.0%로 확대된 반면, 부동산업은 24.3%에서 7.8%로 축소
 - 제조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15.2%에서 '10~'14년 15.6%로 0.4%p 확대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업종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>

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업종별 對 일본 직접투자 비중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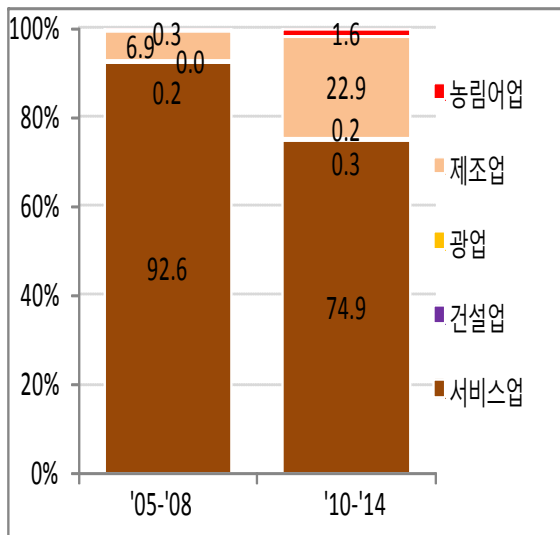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

- 중국의 對 한국 최대 투자업종은 서비스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대폭 확대
 - 서비스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92.6%에서 '10~'14년 74.9%로 17.7%p 축소
 - 동기준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은 10.3%에서 5.2%로 축소된 반면, 음식·숙박업은 0.7%에서 12.7%로, 부동산업은 0.0%에서 2.4%로 확대
 - 제조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6.9%에서 '10~'14년 22.9%로 16.0%p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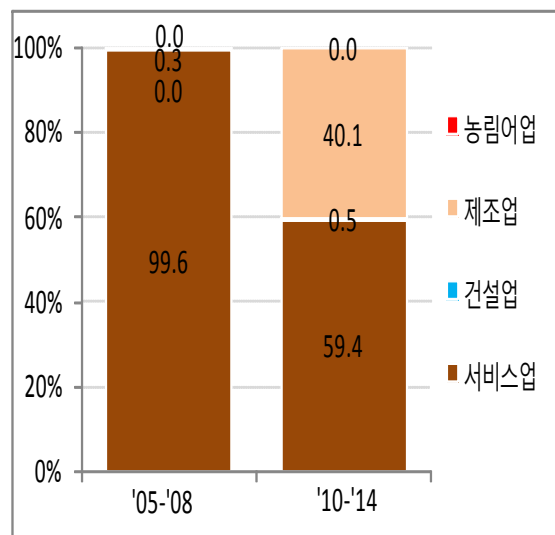
- 중국의 對 일본 최대 투자업종은 서비스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는 축소된 반면, 제조업 투자는 대폭 확대
 - 서비스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99.6%에서 '10~'14년 59.4%로 40.2%p 축소
 - 제조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'05~'08년 평균 0.3%에서 '10~'14년 40.1%로 39.8%p 확대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업종별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 >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업종별 對 일본 직접투자 비중 >



자료 : 일본은행(BOJ)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각 구간 평균.

3) 종합 평가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확대되었으나, 투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對 중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, 일본 부도의 역내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
 -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對 중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
 - '05~'08년 평균 對 중국 투자 비중 81.4%에서 '10~'12년 평균 83.7%로 확대
 - 일본 주요 역내 투자도 지속되고 있음
 - '05~'08년 평균 일본의 역내 투자는 66.6%에서 '10~'12년 평균 73.4%로 확대
 -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나 점차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음
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 >

구분	내용		
① 역내 투자 규모 확대	-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 확대 ·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 축소, '11년 이전 수준 회복, 규모 확대		
② 투자 증가 속도 둔화	-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· '05~'08년 연평균증가율 : 45.3% · '10~'12년 연평균증가율 : 25.4%		
③ 對 중국 쏠림 현상 심화	- 역내 상호 투자 비중 · '05~'08년 평균 : 對 중국 81.4%, 對 한국 15.9%, 對 일본 2.7% · '10~'12년 평균 : 對 중국 83.7%, 對 한국 14.5%, 對 일본 1.8%		
④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지속	- 최대 투자국 · '05~'08년 평균 : 일본 66.6%, 한국 31.5%, 중국 1.9% · '10~'12년 평균 : 일본 73.4%, 한국 24.3%, 중국 2.3%		
⑤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나 점차 서비스업으로 확대	일본	對 한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40.9%, 서비스업 29.5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35.9%, 서비스업 30.1%
		對 중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61.3%, 서비스업 19.3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56.0%, 서비스업 21.9%
	한국	對 중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75.2%, 서비스업 20.0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78.2%, 서비스업 20.9%
		對 일본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15.2%, 서비스업 84.4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15.6%, 서비스업 82.7%
	중국	對 한국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6.9%, 서비스업 92.6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22.9%, 서비스업 74.9%
		對 일본	· '05~'08년 평균 : 제조업 0.3%, 서비스업 99.6% · '10~'14년 평균 : 제조업 40.1%, 서비스업 59.4%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작성.

3. 시사점

-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
 - 첫째,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·강화
 - 기 체결 및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강화 및 한중일 FTA 추진 등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
 - 한중일 3국간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모색
 - 둘째, 對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 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
 - 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, 압도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對 한국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
 -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,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시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
 - 셋째,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
 -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, 금융·보험업 및 부동산업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도 필요
 - 넷째,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
 - 해외의 기술·인력·판매망을 국내 산업 기반과 연계하여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-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신사업 개척 노력과 함께, 해외투자 시 국산 설비 활용 및 국내 전문인력 파견 등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 노력도 병행

동북아연구실 이해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